

한국 호랑이의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

강석근*

차 례

1. 머리말
 2. 한국 호랑이의 특징
 3. 한국 호랑이의 상징과 가치
 - 3.1. 호랑이와 산신
 - 3.2. 호랑이와 벽사(辟邪)
 - 3.3. 호랑이와 죽음, 호환(虎患)
 - 3.4. 호랑이와 설화
 4. 마무리 - 호랑이 상징의 미래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호랑이가 가진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한 논문이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현실적인 삶과 심상에 깊이 자리 잡은 동물이다. 호랑이는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최초 DNA를 가진 「단군신화」에서부터 나타난 후 계승되어 왔으며,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최종 포식자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엄청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랑이는 산신이며, 또는 산신의 사자이다. 『후한서』에서는 “‘동예족’은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며 신으로 섬긴다.”고 했고, 이런 신앙의 전통은 최근까

*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ksk803@hanmail.net

지 삼척군 근남면에 있는 '백호 서낭당'에까지 이어졌고, 현대 강원도 '산맥이'의 전통과도 연결된다.

둘째, 호랑이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가진다. 호랑이는 동서남북 가운데, 서쪽을 지키는 상징적 동물이 되었다. 4~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왕릉 호석의 12지신상(十二支神像) 등에도 남아 있다.

셋째, 전통사회를 대표하는 죽음의 요인에는 '호환(虎患)과 마마(媽媽)'가 있다. 조선초기 호랑이를 잡던 착호군(捉虎軍)이 전국에 1만명이 있었고, 1900년경 함경도 원산에서 1년간 거래되던 호랑이 생가죽은 500여 개였다고 한다. 1980년 중반까지 태백산 산간에 남은 호식총의 흔적도 무려 220여 개나 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설화가 넘쳐난다. 이를 분류하면, 보은형, 호식형, 우둔형, 변신형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호랑이 설화가 무척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호담국(虎談國)'라고 불리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다섯째, 이제 한국에는 자연 상태의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호랑이의 가치가 사라졌는가? 경북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2018년 5월 4일 개장되면서, 방사한 3마리 호랑이의 인기로 인해 이 수목원은 명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곳에 호랑이 박물관을 개관하고, 호랑이 문화콘텐츠의 성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호랑이, 산신(山神), 벽사(辟邪), 호담국(虎談國), 호돌이, 백두대간수목원(白頭大幹樹木園)

1. 머리말

호랑이는 자연 속의 맹수이지만 한국인의 현실적인 삶과 심상에 깊이 자리 잡은 동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가끔씩 출몰하던 맹수가 아니라, 심각하게 사람들의 생명과 가축을 위협하던 동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던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5대조인 호경(虎景)의 사례, 후백제 견훤(甄萱)의 사례, 조선 태조의 선조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도 호랑이와 관련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작은 물론 고려, 후백제, 조선 왕조의 출발이 호랑이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대문호 노신(魯迅)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최남선은 한국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너무 많아 조선을 호담국(虎談國)이라 불렀다고 했으며, 또 한국의 호랑이 설화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에 따르면, “한국사람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고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는 중국의 속담이 있다고 했다.¹⁾ 또한 W.E 그리피스(Griffis)는 1890년경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한 뒤 지은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는 “조선 사람은 반년 동안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사냥한다.”²⁾ 라고 서술했다. 이 기록은 경이를 넘어서 경악할 만한 내용이다. 조선 초기, 전국에 약 1만명의 호랑이 사냥꾼인 착호군(捉虎軍)이 있었고, 1890년

1) 이사벨라 버드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의 조랑말」, 『한국과 그 이웃나라』, 집문당, 2000. 127면.

2) W.E 그리피스(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한말 외국인 기록 3. 집문당, 1999. 413면.

경 한해에 함경도 원산 지역에서 거래된 호랑이 생가죽이 500여 개였다고 했으니, 호랑이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사람에게 호랑이는 공포이자 재앙 그 자체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사람들에게 호환(虎患)은 마마(媽媽)(천연두)와 함께 대표적인 재앙이었다. 따라서 공포를 넘어 경외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하게 우리의 문화와 심상에 침투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남선은 한국의 호랑이에 천착하며³⁾, 중국의 용처럼, 인도의 코끼리처럼, 이집트의 사자처럼, 이탈리아의 이리처럼 조선에서 신성한 동물은 ‘호랑이’이라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호랑이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박은정에 따르면, 최남선은 한국에서 호랑이는 역대로 숭배 받아온 벽사(辟邪)의 상징이고, 수호(守護)의 상징이며, 산신(山神)이며, 긍정적 기운을 상징하는 신수(神獸)라 주장했고, 아울러 호랑이를 조선의 표상(表象)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⁴⁾

호랑이는 『조선왕조실록』에 635회 검색이 되는데, 그 내용은 “1) 호랑이에 대한 관념, 2) 호랑이 머리로 기우제 지냄, 3) 호환과 호식이 있음, 4) 호랑이의 출몰, 5) 호랑이는 임금과 힘을 상징, 6) 가혹한 정치, 즉 피해 가족이 호랑이에게 복수하는 열부, 효자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⁵⁾

본고는 한국 호랑이가 가진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 호랑이의 특징’을 비롯하여, ‘호랑이와 산신’, ‘호랑이와 벽사’,

3) 최남선, 「호랑이」 1~7, 『동아일보』, 1926.

최남선, 『동아일보』, 1926년 1월 1일, 「호랑이(一)」, 「虎는 朝鮮의 神獸」.

4) 박은정,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3면.

5) 이여령 편집, 「호랑이와 신앙」, 『십이지신 호랑이』, 생각의 나무, 2009. 143면.

‘호랑이와 죽음, 즉 호환(虎患)’, ‘호랑이와 설화’라는 주제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한국 호랑이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범’이라고 불렸다. 호랑이의 어원을 따져보면, 한자어 호랑(虎狼)과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호랑(虎狼)은 호랑이와 이리의 복합어이지만 통상적으로는 호랑이만을 의미한다. 『계림유사』에 따르면, 호(虎)를 ‘범’이라고 풀이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옛날부터 범과 호랑이를 혼동해 왔다. 진태하⁶⁾는 ‘범’은 호랑이의 이칭이 아니라 ‘표범’ 곧 ‘표(豹)범’을 줄여서 일컫는 고유한 우리말이라 하였다. 호랑이와 ‘범’이 같은 종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호랑이[虎]를 ‘호랑이’라 부르기 보다는 무늬에 줄이 있는 호랑이는 ‘줄범’, 엽전 모양의 둥근 무늬가 있는 표범은 ‘돈범’으로 부르며 두 가지를 통칭하여 ‘범’으로 불렀다고 한다.⁷⁾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호랑이를 ‘범’으로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고대의 한반도에 호랑이가 살았던 증거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 유적에서 확인되며, 이곳은 최고인 약 55만 년전의 유적이라고 한다. 또 충북 단양 ‘구낭굴 구석기’ 유적에서는 호랑이 아래턱, 송곳니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호랑이 그림이 등장한다. 이처럼 고대에도 한반도에 호랑이가 존재했고, 문헌상으로는 「단군신화」가 가장 오랜

6) 표범은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아니라, 침입과 같이 무늬가 동글동글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범이라 함. 또는 갈범이라고도 하는데, 갈범은 침을 한자로 갈(葛)이라 쓰기 때 문이다. ‘앞니 빠진 갈가지’에서 갈가지는 범의 새끼를 뜻한다. 송아지처럼 갈가지는 갈(범은 생략)+아지의 형태인데 비해, 호랑이 새끼는 ‘개호주’라고 한다.

7) 김강산, 『호식장(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10~11면.

기록이다.

한국호랑이(조선호랑이, korean tiger)는 ‘만주호랑이’ 혹은 ‘시베리아 호랑이’라 불리며,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지만, 대체로 동북아시아에 사는 호랑이는 학술적으로는 ‘시베리아 호랑이’로 불린다.

호랑이는 동물군에서 최고의 포식자이자, 그 습성과 외모, 및 그 횡포성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공포와 신앙의 대상이었다. 호랑이는 그 수가 많고 신체는 크고 밝은 황갈색 모피와 성긴 검은 줄무늬, 흰 이마에 임금왕자(王字)가 새겨져 있고, 하루에 80~100km를 다니는 기동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충(大蟲), 병호(炳虎), 산군(山君), 산군자(山君子), 산신(山神), 산중영웅(山中英雄)⁸⁾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배의 양가(兩價)의 감정⁹⁾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와 심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정월(正月), 벽사(辟邪), 수호(守護), 신령(神靈), 위용(威容), 권위(權威), 길상(吉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¹⁰⁾

호랑이가 강하고 잔인할수록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항상 심각한 피해를 당하던 인간은 호랑이의 강인한 특성을 역이용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방패로 삼았다. 외부에서 오는 질병이나 사된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것이 필요했다. 호가호위(狐假虎威), 즉 ‘인가호위(人假虎威)’한 것이다. 즉 호랑이의 능력과 위력을 빌려 벽사(辟邪)와 축사(逐邪)의 기능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권능을 가진 산속의 호랑이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무한한 상상의 동물이며, 또 매우 매력적인 동물

8) 이창식, 『호랑이 띠』, 국학자료원, 1998. 「호랑이를 지칭하는 방언」, “개오지(무주), 호오라이(포항), 대추니(춘천), 호래(단양, 홍천), 도루바이(평북 강계, 고성), 호래이(경북), 도루바리(함남 풍산), 산돌이(강원), 두루바리(함남 해산), 산지킴이(충청), 버업(청주), 산찌검이(경상도), 산실령(부여), 호랭이(경기, 강원, 충청, 전라), 산주인(평북 후창), 호래이(전남, 경상), 오래이(거제), 호래이(경남), 왕누니(양주), 호랭이(경북), 호라이(경주).”

9) 이어령 편집, 「호랑이와 신앙」, 『십이지신 호랑이』, 생각의 나무, 2009. 167면.

10) 박은정, 「근대이전의 호랑이 상징성 고찰」, 『은지논총』 제43집, 온지학회, 2015. 308면.

이 되었다. 호랑이가 횡포하고 무서울수록 우리의 상상력으로 더 증폭된다.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튀’라는 동물을 만들고, 어디로 갈 때마다 ‘튀튀’ 하고 침을 뱉으면서 갔다고 한다.¹¹⁾ 이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논리이다. 『논어』의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사납다[苛政猛於虎]”는 내용은, 현실정치의 가혹함을 풍자할 때 자주 쓰이지만, 오히려 호랑이가 가진 선기능을 평가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림 1〉 단원 김홍도 송호도(호암미술관)



〈그림 2〉 까치 호랑이(에밀레 박물관)

호랑이는 강하고, 횡포하여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동물이지만, 때로는 순치되어 산신의 사자가 되고, ‘까치 호랑이’ 이야기처럼 친근하고 바보스러운 캐릭터가 되고,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약한 자에게 거들먹거리는 악동’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배고픈 아이에게는 꽃감보다 무력한 캐릭터로 한없이 나약하게도 그려진다. 반대로 호랑이는 신령과 같

11) W.E 그리피스, 「조선의 호랑이」, 『은자의 나라 한국』, 한말 외국인 기록 3. 집문당, 1999. 414면.

이 지소가 있어서, 죽은 사람, 죽은 고기, 병든 사람, 임신한 여자, 상주, 승려, 술 취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한다. 지극한 효자나 열부를 돕고, 자신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돕는 의리의 습성도 보여준다.

일본의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는 1903년에 발표한 「조선 산맥론(朝鮮山脈論)」에서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 모양’이라 주장하며 한반도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자, 최남선은 1908년 『소년』 창간호를 통해서 한반도는 ‘호랑이의 형상’이라 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 모습’으로 그리고 호랑이는 ‘조선의 표상’이라 규정하였다.¹²⁾



〈그림 3〉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그림 4〉 최남선이 창안한 호랑이형 한반도 지도(소년, 1호, 1908년)

이처럼 호랑이는 진보, 독립, 모험, 투쟁, 흥포, 강인, 지혜, 의리, 어리석음, 친근함 등의 다양한 요소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한민족의 기상과 특성에 비견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되어, 88년 서울 올림픽의 호돌이, 서울시 마스코트 ‘왕범이’, 프로야구 기아(해태) 타이거의 상징 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12) 박은정,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4면.

3. 한국 호랑이의 상징과 가치

3.1. 호랑이와 산신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된 산악국으로서,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의 나라’라 불렸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호랑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산신을 좌정되었다. 호랑이에 대한 이런 숭배의 전통은 아주 오래 되어, 『후한서』 「동이열전, 예(濊)」조에 따르면, “또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又祠虎以爲神]”고 했으니, 이런 풍속은 원시시대부터 전해오던 습속이었던 것 같다. 서력 기원 이전, 일본 해안에 살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그들은 호랑이를 섬기되 마치 신을 경배하듯이 했다고 했다.”¹³⁾ 아울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호랑이를 산군이라 부르며, 무당이 진산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도 이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예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강원도 삼척군 근남면 길남리에 있던 ‘백호 서낭당’에서는 호랑이를 주신으로 모셨고, 지금도 그런 전통은 강원도의 ‘산맥이’ 축제에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산신이면서 또한 산신의 사자(使者)이기도 하였다. 『산해경』 「해외동경(海外東經)」에 따르면, “군자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털을 가진 두 마리 호랑이를 길러서 심부름을 시킨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단군신화」를 거쳐 우리나라 각 사찰에 있는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과 사찰 벽화와 무속의 산신도(山神圖)에서도 확인된다. 산신도의 호랑이는 산신의 모습을 닮아 온순하고 평온하여, 산신의 사자(使者) 혹은 산신과 동격으로 신봉되며, 산신의 현현으로 숭배된다.

13) W.E 그리피스, 「조선의 호랑이」, 『은자의 나라 한국』, 한말 외국인 기록 3. 집문당, 1999. 413면.



〈그림 5〉 해인사 산신각 산신도(사진 윤열수)



〈그림 6〉 수원 팔달선원 벽화, 담배 피우는 호랑이 (사진 윤열수)

산을 숭배하는 사상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와도 연계되어, 호랑이를 별칭으로 산군·산군자(山君子)·산령(山靈)·산신령(山神靈)·산중영웅(山中英雄)이라는 극존칭으로 불렀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현대의 심마니들은 자연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호랑이까지도 산신령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산신도에 묘사되고 있는 호랑이는 무섭고 사납기보다는 점잖고 친근하게 표현되고 있어 민간에는 매우 친근한 이미지로 전해진다.

3.2. 호랑이와 벽사(辟邪)

호랑이는 일찍부터 벽사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풍수설에서도 호랑이를 중요시하였다. 풍수설이 음양오행사상과 습합되면서 호랑이를 비롯한 사신(四神)들은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상징적 동물이 되었다. 이런 사상은 중국의 진한시대(秦漢時代)에 발생하여 고구려 고분에도 이어졌다. 이 때의 사신(四神)은 즉 '사령(四靈)' 또는 '사수(四獸)'라 불린다. 동은 청룡(靑龍), 서는 백호(白虎), 남은朱雀(朱雀), 북은 현무(玄武)가 그것이다. 사신도가 등장하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4~5세기 이후 무용총, 강서대묘

등을 거쳐 백제, 신라를 지나 조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무덤을 쓸 때에는 좌청룡·우백호를 살피서 자리를 정했고, 무덤을 보호하는 능호석(陵護石)에는 12지신상을 새겼다. 이 중 인상(寅像)이 호랑이상이다.



〈그림 5〉 고구려 우현리 중묘 백호도



〈그림 6〉 호랑이 부적(에밀레 박물관)

호랑이에게 벽사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을 비롯하여 일반 민가에서도 호랑이의 그림을 대문에 붙였다. 또한 대문에 귀(龜)와 호(虎)라는 첩자를 붙였다. 이러한 벽사의 염원은 '호랑이 삼재(三災)부적'에도 나타난다. 삼재는 풍(風)·수(水)·화(火)의 재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초의 세화(歲畫) 부적에 호랑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호랑이의 용맹성과 무서움이 벽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부적은 종이에 글씨·그림·기호 등을 그려 붙이면, 악귀를 쫓고 복을 준다고 믿는 주술적 도구이다. 호랑이 벽사부적에는 '축삼재(逐三災)', '출림맹호 축삼재도(出林猛虎逐三災圖)'라는 글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또 호랑이가 새겨진 망와(望瓦), 장식용 호랑이 이빨, 만 마리의 호랑이가 그려진 만호도(萬虎圖)가 주로 활용된다. 경복궁을 지을 때, 관악산의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하여 관악산에 석조호랑이와 호압사(虎壓寺)라는 절을 세우는 일도 호랑이를 활용한 벽사의 행위에 속한다.

신행을 가는 신부의 가마를 호랑이 가죽으로 덮고, 호랑이 이빨을 간

직하고, 호랑이 가죽을 벽에 거는 행위도 호랑이 벽사에 해당되며, 장례식 때 쓰는 상여에 새겨진 나무꼭두는 호랑이가 말을 탄 모습인데, 이는 호랑이가 죽은 영혼을 안내하고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호랑이가 그려진 벼갓모는 잠자리의 액운을 쫓아낸다. 우리 민속에서 ‘범 왔다.’하고 세 번을 외치면 독감이 낳는다고도 하고, ‘호(虎)자 부적이나 쪽으로 만든 호랑이도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 호랑이가 워낙 용맹한 짐승이므로, 능히 귀신이나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3.3. 호랑이와 죽음, 호환(虎患)

옛날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은 “호환(虎患)과 마마(媽媽)”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조상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호환(虎患)과 마마(媽媽)”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호환이라는 말 외에도 “호랑이의 입에 들어간다.”는 뜻인 ‘호람(虎嚙)’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885년(헌강왕 11) 2월에 호랑이가 궁궐 마당에 뛰어 들어왔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김현감호」조는 신라의 대표적인 호랑이 이야기이다. 「김현감호」의 김현은 호랑이를 죽이고, 벼슬과 상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고려, 조선은 물론 신라시대에도 호랑이의 피해가 많았고, 호랑이를 잡으면 상을 받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무서웠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고을마다 수백 명의 산척(山尺)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 고을 수가 330여 곳이니 조선 전체의 산척은 1만명 정도라고 했다.¹⁴⁾

14) 이희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도서출판 따비, 2016. 41면.

『경국대전』에 따르면, 각각의 주(州)와 부(府)는 50명, 군(郡)은 30명, 현(縣)은 20명의 착호인(捉虎人)을 두게 했다고 한다. 만약 호랑이가 출현하면 수령이 착호인을 소집하여 포획하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⁵⁾

이 착호군의 후예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미국과 프랑스의 강화도 침략 등등의 외환 때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다. 구한말과 일제 때의 병으로 나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호랑이를 잡던 착호군(捉虎軍)의 후예들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의병장 홍범도 장군도 호랑이를 잡던 포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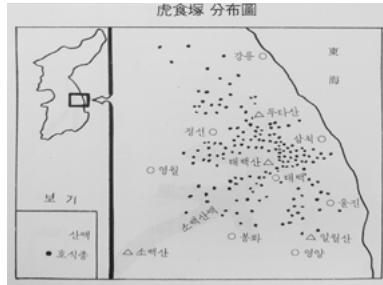
이런 착호군의 운영은 호랑이의 피해가 나라 전체에 걸쳐 매우 심각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사람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는 중국의 속담을 인용하며, 호랑이의 피해를 강조하였다. 이런 기록은 조선후기에 호환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를 잘 증언해준다.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먹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시대에는 호환으로 인한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 장례 방식은 호식장(虎食葬)이고, 이런 무덤은 호식총(虎食塚), 호사총(虎飮塚)이라고 하였다.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한 이의 시신을 장례하는 호식장이 장례의 한 풍속으로 규범화가 될 만큼 호환이 많았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호환은 충격적이었다. 김강산에 따르면, 1988년 이전에 강원도 태백시 근처의 태백산 주위에서 발견된 호식총의 흔적은 220여 개소나 된다고 하였다.^{16) 17)}

15) 『성종실록』, 3년 3월 20일.

16) 김강산, 『호식장(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24~29면.
위 자료에 따르면, 김강산은 태백산 주변에 남은 호식총의 흔적은 태백시 50개, 정선군 80개, 삼척군 70개, 봉화군 12개, 울진군 7개, 영양군 1개 등 220여 개소라 하였다.

17) 위에 인용한 호식총 관련 사진은 김강산의 『호식장(虎食葬)』에서 전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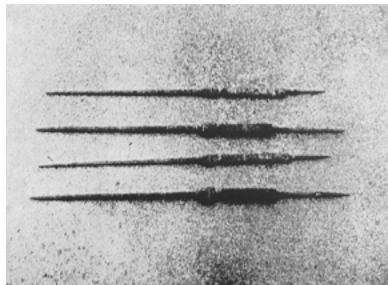
〈그림 9〉 태백지역의 호식장 분포도(김강산)



〈그림 10〉 호식총(사진 김강산)



〈그림 11〉 호식총에 사용된 시루(사진 김강산)



〈그림 12〉 시루에 쬐는 물레의 가락 (사진 김강산)

호식장의 습속을 살펴보면, 수습된 시신은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남은 재 위에 바로 돌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놓고, 시루구멍에는 쇠가락을 꽂아두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사악한 기운을 완전히 제압하고, 호랑이에게 붙었던 창귀(尙鬼)¹⁸⁾라는 귀신을 완전히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창귀는 산에서 비명횡사하여 죽은 귀신[山橫死鬼神]인데, 즉 호랑이에게 먹혀서 잡귀가 된 다음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서 호랑이에게 봉사한다고 한다.

창귀는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잡아 먹어야만 그 호랑이에게서 해방되

기 때문에,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도록 악착 같이 안내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호환은 전염병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환은 재난 중의 재난으로 여겨졌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호랑이 보다는 창귀였다. 이런 이유로 유족들은 호환을 당한 유골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거꾸로 얹어두고, 시루 구멍에 칼이나 쇠로 만든 가락(물레에 쓰이는 도구로 양쪽이 송곳처럼 생긴 긴 쇠가락)을 꽂아서¹⁹⁾ 창귀의 발호로 인한 다음의 피해를 철저히 예방했다.

이런 장례 풍속은 호환에 대한 인간의 엄청난 공포감을 증언한다. 호랑이에게 먹힌 유골을 화장하는 것은 창귀(尙鬼)를 비롯한 사악한 기운을 완전 소멸하려는 뜻이며, 돌무덤은 무거운 돌로 눌러서 이중으로 창귀를 제어한다는 의도이며, 또 그 지역은 특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며, 시루는 살아있는 생명을 수증기로 찌서 죽이는 필살의 도구이므로 3번째로 창귀를 제어하는 장치가 된다. 칼이나 물레의 가락을 시루구멍에 찔러두는 행위는 생명을 앗는 무기인 뾰족한 쇠가락으로 4번째로 창귀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창귀가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4겹의 장치를 가진 무덤이 바로 호식총이다. 특히 물레에 쓰는 쇠가락을 창귀를 제어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실을 잣던 물레 가락의 순환 기능처럼, 창귀가 시루 안에서만 뱅뱅 돌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²⁰⁾

계속 이어지는 호환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4겹의 철벽 방어장치를 만든 호식총을 조성했다고 해도, 당시 사람들은 엄습해 오는 호환의 공포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여러 곳에서

18) 위 책에 따르면, 창귀(尙鬼)는 ‘굴각(屈閣)’, ‘이원(麟元)’, ‘죽혼(鬪渾)’ 또는 ‘홍살이 귀신’, ‘뒤흥살귀’, ‘홍살귀’로 불리고, 태백지역에서는 ‘가물글기’, ‘가문글기’로도 불린다고 한다.

19) 김선풍 외, 『민속적으로 본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6. 85~86면.

20) 김강산, 『호식장(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85면.

호환의 방지를 위한 ‘범굿’과 같은 벽사의 기능을 가진 여러 형태의 제의가 연행되었다.

『고려사(高麗史)』 원종 원년 2년조에는 “정월에 호랑이가 고성현(固城縣) 석천사(石泉寺) 동구에 모여 북을 치며 춤을 추었다.”²¹⁾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당시 호랑이와 관련된 집단적 악무(樂舞)이자, 호랑이의 악귀와 재난을 퇴치하려고 공연했던 호랑이 탈춤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고려 때, 평양에서 공연되는 평양 탈춤은 사물놀이와 서도창이 어우러진 호랑이의 군무가 주요 내용이었고, 충남 청양군 적곡면에서 정월대보름 때 진행되던 ‘범놀이’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려는 목적을 가진 호랑이와 관련된 동제였다. 마을에서 재난을 몰아내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이 행사는 호랑이탈을 쓰고 지신밟기 놀이처럼 동네를 다니며, 호랑이의 힘으로 벽사진경(辟邪進慶)을 추구하고 잡귀를 물리쳤다.²²⁾

또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에서 연행되던 별신굿의 ‘범굿’은 범에게 물려 죽은 넋을 위로하고 호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의 머리를 뒷산에 묻고, 박수가 종이로 만든 호피 옷을 입고, 닭을 잡아먹는 시늉을 할 때, 포수가 총으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 불에 태우는데, 이는 호랑이에게 죽은 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은 첫째 “사람이 범에 잡아 먹혀서 시신을 못 찾았을 때, 둘째 범에게 잡아 먹힌 시신의 일부를 수습하여 매장했을 때, 셋째 범한테 물려죽은 사람이 있을 때,” 행하던 곳으로 호환의 예방과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의식이었다.

호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내던 제사의 유습에는 현대 강원도 지역의

‘산맥이’가 있다. 이것은 호환의 예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산제사인데, 산군(山君, 호랑이)에게 미리 굴복하고 산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며, 산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호환을 면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다.²³⁾고 한다. 이런 전통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원도 삼척 미로면의 ‘산맥이 천제’에도 이어져 왔다. 미로면의 산맥이 천제는 예방 제의의 성격을 지니며, 가축의 무병(無病)을 기원하고, 호환 등의 재난 방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²⁴⁾



〈그림 13〉 삼척 미로면 선음산 조상맞이
(2005. 5. 17. 사진 김도현)



〈그림 14〉 삼척 미로면 선음산 은선암 산맥이
(2018. 4. 29. 사진 김도현)

3.4. 호랑이와 설화

현대에 와서는 ‘호랑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었다. 실제적인 호랑이는 없어지고 이야기만 남아 전한다는 뜻이다. 선사시대 이후 한반도에 살던 선조들은 최악, 최강의 포식자인 호랑이와 경쟁과 대립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와 더불어 희로애락과 공포를 느끼며 오래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랑이

21) 李種微, 『修山集』 卷十, 「高麗史志」 「오행지」, “元宗二年 正月虎聚 固城縣 石泉寺洞 擊鼓而舞.”

22) 이창식, 『호랑이 띠』, 국학자료원, 1998. 45면.

23) 김강산, 『호식장(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97면.

24)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선음산 산메기」, 『박물관지』 제15호, 강원대학교, 2009. 2. 20면.

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 기상을 대변하는 동물이 되었다. 이런 모습은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유득공이 채록한 『속백호통(續白虎通)』과 박지원의 「호질」 등으로 이어졌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우리나라의 호랑이 설화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최인학의 경우, “1)보은형, 2)호식형, 3)우둔형, 4)변신형”, 이창식의 경우, “1) 착해서 은혜갚기 형, 2) 잔인해서 잡아먹기 형 3) 어리석어 바보되기 형 4) 스스로 변신하기 형”, 황정화의 경우, “1)신격형, 2)보은형, 3)호환형, 4)우둔형”, 이가원의 경우 “1) 호를 아는 호랑이, 2)호랑이의 자식사랑, 3)은혜갚은 호랑이, 4)어리석은 호랑이, 5)신령으로 모셔지는 호랑이,”로 분류된다.

이러한 설화 중에서도 ‘변신형’은 호랑이 설화의 주요한 모티프이다. 「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변신에 성공하지 못했고, 꿈은 변신해서 여인이 되었다. 최자의 『보한집』에 나오는 「호승(胡僧)²⁵⁾은 호랑이의 변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삼국유사』 「김현감호」의 이야기와 맥락이 비슷하다.

「김현감호」의 이야기는 경주시 서천가에 세워진 호원사(虎願寺)의 창건연기설화이다. 호원(虎願)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호랑이의 서원’을 담은 이야기이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호랑이에 대한 자료 가운데 비교적 오래 되었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대표적인 호랑이 변신담에 해당된다.

2월 15일을 맞아 흥륜사에서 우연히 김현과 함께 탑돌이를 하던 호랑이 처녀는 특별한 캐릭터의 인물이다. 인간의 생각과 여성성을 지닌 이 여인은 호랑이로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했다. 이 호랑이 여인은 다가오는 자기 집안의 비극을 예견하고 탑돌이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그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그 여인은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는 전형적인 ‘맏딸 의식’의 발로이다. 이런 의식은 부친을 위해 인당수에 인신공양을 자청한 심청, 대중가요 ‘처녀 뱃사공’에 나오는 그 처녀, 6~70년대에 어려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공장으로 떠났던 여러 집안 맏누이들의 희생을 연상하게 한다. 그녀는 악행을 일삼던 오빠 3명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자처하였다. 하룻밤의 인연으로 맺은 낭군에게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준 호랑이 처녀는 보살의 화신이였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비방도 가르쳐 주었다. 예지와 의리, 공익정신, 책임감, 희생정신을 두루 갖는 여인은 보살인 동시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형, 희생형 ‘맏딸’이었다. 「김현감호」의 호랑이 여인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이며 희생적인 ‘맏누이’ 정신과 보살적인 캐릭터를 가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김현감호」의 변신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가 크다.

호랑이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최종 포식자이다. 이는 인간사회에서는 전제 왕권에 해당된다. 호랑이가 가진 절대 권력은 민중들에게는 절대적인 왕권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전제적인 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자연스럽게 등장시켜 전제적, 제왕적 권력과 금수보다 못한 인간성을 비판하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²⁶⁾ 이러한 과정에서 호랑이 설화는 해학과 비유, 풍자, 질타, 은유의 기법이 동원되었다. 박지원의 「호질」이나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호랑이 보다 못한 인간의 폭력성과 가학적인 잔학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이후 다양

25) 최자. 유재영 역. 『보한집』, 원광대출판부, 1981. 467~470면.

26)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집, 2012. 191~193면.

한 형태의 설화와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15〉 백두대간수목원의 호랑이 숲
(사진 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그림 16〉 백두대간 수목원의 호랑이
(사진 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4. 마무리 - 호랑이 상징의 미래

“한국 사람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고 했다. 또 조선 초에는 전국에 호랑이 잡는 착호군(捉虎軍)이 1만명이 있었고, 1900년경 함경도 원산에 거래되는 호랑이 생가죽은 500여 개였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구한말 이전의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절대자이자 폭압자였다. 이런 이유로 조선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너무 많아 호담국(虎談國)이라 불렸고, 최남선은 호랑이를 ‘한국의 표상’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 중반까지 태백산 산중에서 발견된 호식총의 흔적은 220여 곳이나 되었고, 호환당한 유골을 그 자리에서 화장한 다음 돌무덤을 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두고, 그 시루 구멍 속에 쇠가락을 꽂아두는 호식총 풍속은 호환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상징한다.

일본의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한반도는 ‘토끼의 모습’이라는 주장과 최남선이 한반도는 ‘호랑이 형상’이라는 반박은 경북 포항시 호미(虎尾)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포항시 호미(虎尾)곶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한국인은 토끼도 되고 호랑이도 된다. 호미(虎尾)곶을 토미(兔尾)곶이라 불러야 할지, 호미곶이라 불러야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포항시민과 우리국민의 기상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는 자연 상태의 호랑이는 없다. 그럼 호랑이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가. 자연상태의 한국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에서도 호랑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와 자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88서울올림픽 때 ‘호돌이’가 마스코드로 채택이 되면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부활했다. 이어 서울시는 호랑이 ‘왕범이’를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아 타이거즈는 호랑이를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다. 「단군신화」의 호랑이나 곰은 모두 프로야구팀의 중요 캐릭터로 부활하였다. 영화 대호(大虎, The Tiger, 2015, 박훈정 감독, 최민식, 정만식, 김상호 출연)는 한국인과 한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신성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지리산에서 한국인의 마음에까지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한민족 기원의 정보를 담은 「단군신화」에서부터 등장한 호랑이는 사신도(四神圖)의 동 청룡(靑龍), 서 백호(白虎), 남朱雀(朱雀) 북 현무(玄武)의 하나로 전해지고,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중에서는 인상(寅像)으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나이를 세는 단위, 즉 호랑이 띠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호랑이는 현재형이자 미래형의 자원이다.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國立白頭大幹樹木園)이 2018년 5월 4일 개장되었다. 그곳 ‘호랑이숲’에 3마리 호랑이(두만 18살 ♂, 한청 9 14살, 우리 8살 ♂)를 방사하고 있다. 이 호랑이 3마리의 방사로 인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갑자기 명소가 되었고,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봉화지역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호랑이 3마리가 가져다 준 위력이자 변화이다. 따라서 호랑이는 한국의 미래적, 잠재적, 콘텐츠적, 자원적 가치가 무궁무진이다. 이런 이유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호랑이박물관도 개관하고, 각종 호랑이 콘텐츠를 전담하는 한국의 호랑이문화콘텐츠 성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호랑이는 이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국 호랑이의 다양한 콘텐츠화 방안은 다음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ABSTRACT]

The Study of the Symbolic Meaning and Value of Korean Tiger

Kang, Seog-Keun(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ly symbolic meanings and values the Korean Tiger has. Tiger is a symbolic animal that is deeply rooted in real lives and images of Koreans. Tiger has not only been inherited since it first appeared in the myth of Dangun that is considered as having the very first DNA of Korean culture and Koreans, but also it is the final predator in food chain of ecosystem.

Therefore, it becomes the subject of big fear and awe to humans as well. Sinc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Tiger in Korea, the China has called the Joseon Dynasty 'Hodam-Guk' referring to the nation with lots of Tiger stories. Korea had lots of Tigers, which even made the China has a saying that Koreans spent one and a half years chasing Tigers and the rest of the half-year going to offer their condolences to people who were eaten by Tigers. Accordingly, it was not surprising that the Korean Tiger 'hodori' was also chosen for the 1988 Olympics in Seoul.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ized discussions on the representative images and cultural symbols of Korean Tiger.

First, Tiger is a mountain god in Korea and also the Lion of mountain gods as well. In the history book of Later Han called Hunhan-saw stated

that the Korean race performed the ancestral rituals and worshipped Tiger as god and such kind of traditions of religious beliefs are even linked to the shrine for white tiger called White Tiger Seonangdang located in Samcheok-Gun, Geunnam-Myeon.

Second, Tiger has a power to drive away evil spirits called Byeok-Sa(辟邪), and becomes a symbolic animal protecting the west among four cardinal directions. Tiger remained as one of the 12 animal guardians on the rock that was protecting the Ancient tomb mural in Goguryeo and Silla royal tomb in the 4th to 5th century. The tradition for Byeok-sa has been passed down in the forms of Tiger amulets and Tiger paintings. Even though Tiger is considered scary, it instead becomes a guardian who protects us.

Third, the representative causes of death in the traditional society are Tiger Disaster(虎患) and the mama(媽媽: smallpox disease). Tiger Disaster(虎患) refers to the death from Tiger bites, and mama was smallpox. There were ten thousand Tiger catchers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and in about 1900, the transactions of Tiger rawhide was 500 pieces within a year in Hamkyong Province in Wonsan. Accordingly, the death from Tiger was happening on a daily basic. Hosikjang(虎食葬) referring to the customs of holding a funeral for people died from Tiger bites became one of our funeral customs.

Fourth, there are so many stories about Tiger in Korea. Accordingly, on classification, even though every scholar varies their classifications, they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Gratitude Types (Returning the favor); deaths from Tiger Type; stupidity Type (being silly); and transformation

type. The fact that the tiger tale exists in various appearances clearly highlights the position of Hodam-Guk(虎談國) Korea holds.

Fifth, Korea does not have any Tigers in natural state anymore. Does it necessarily mean that the value of Tiger are disappearing?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boretum in Bonghwa-gun in Gyeong-Buk has been opened since May 4, 2018 and it became tourist attractions due to the popularity of three tigers that are much alike. One such example shows that the values and images of Tiger are still well preserved.

Key words : Tiger, Mountain Spirit(山神), Drive away evil spirit(辟邪), Hodam-Guk(虎談國, a nation with lots of Tiger stories), Hodori, Tiger Tale, Baekdudaegan(白頭大幹) Arboretum

[참고문헌]

□ 단행본

- 곽진석, 「호랑이 민담의 형태론」, 『한국문학형태론』, 일조각, 1993.
- 국립제주박물관, 『어흥, 우리 호랑이』, 2010.
- 김강산, 『호식장(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 김근호 · 윤열수, 『한국 호랑이』, 열화당, 1986.
-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선음산 산메기」, 『박물관지』 제15호, 강원대학교, 2009. 2. 17~55면.
- 김선풍 외, 『민속학적으로 보는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1996.
- 김태곤, 『한국무신도』, 열화당, 1989.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 유중선, 「호랑문학과 민속」, 『어문학』 14집, 한국어문학회, 1966.
- 윤열수, 「민화 속의 호랑이」, 『민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삶을 찾아』, 국립민속박물관, 2001.
- 이가원, 『한국 호랑이 이야기』, 학민사, 1993.
- 이 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도서출판 따비, 2016.
- 이가원, 『조선 호랑이 이야기』, 학민사, 1993.
-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지음,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신복룡 역주, 『한국과 그 이웃나라』, 집문당, 2000.
- 이어령 편집, 『십이지신 호랑이』, 생각의 나무, 2009.
- 이창식, 『호랑이 띠』, 국학자료원, 1998.
- 이희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도서출판 따비, 2016.
- 임석재, 「호랑이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한국호랑이』, 열화당, 1986.
- 정 민, 「한반도 호랑이 지도론」,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최남선, 「호랑이」 1-7, 『동아일보』, 1926.

최인학, 「설화 속의 호랑이」, 『한국 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W.E 그리피스(Griffis),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한말 외국인 기록 3. 집문당, 1999.

□ 논문

- 김필래,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1996.
- 박은정,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3~33면.
- , 「근대이전의 호랑이 상징성 고찰」, 『온지논총』 제43집, 온지학회, 2015. 285~315면.
- 이호주, 「호랑이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2.
-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집, 2012. 187~232면.

접수일 : 2019. 03. 18 총평일 : 2019. 04. 20 게재확정일 : 2019. 04. 26